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부록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부록

부록 1: 성서 기본 교리의 요약

부록 2: 성서 진리 학습 태도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부록 4: 하나님의 공의

부록 1: 성서 기본 교리 요약

1. 하나님

- 1.1.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 1.2. 그는 하늘에 특별한 처소에 거하신다
- 1.3. 그는 형체의 몸을 가진 존재이다
- 1.4. 우리는 그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 1.5. 천사들은 그의 멍신저이다
- 1.6. 천사들은 죽을 수 없다
- 1.7.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 1.8. 성서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형체적 몸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 1.9. 신자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하나님의 본성의 몸을 받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

- 2.1. 하나님의 영은 그의 힘이며 호흡으로, 그의 마음을 말한다
- 2.2.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한다
- 2.3. 그의 영은 무소부재하다
- 2.4. 성령은 특별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 2.5. 과거에 여러 기회에 사람들이 그 기적적 영의 은사를 가졌었다
- 2.6. 그 영의 은사는 지금 철수되었다
- 2.7.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 2.8. 성령은 사람에게 그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2.9. 성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으로 된 것이다
- 2.10.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다

3. 하나님의 약속들

- 3.1. 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로 전파되었다
- 3.2. 여인의 후손(창.3:15)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 3.3.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행성인 지구가 결코 파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 3.4.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 3.5.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 3.6. 그러므로 그 약속들은 신자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4. 하나님과 죽음

- 4.1. 사람은 본성이 모탈(Mortal)로 죄성이 있다
- 4.2.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고 있다
- 4.3.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다
- 4.4. 성서의 '영혼'이란 '우리' '몸' '생각' 또는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다
- 4.5. 그 영은 우리의 생명력/호흡과 성질을 말하고 있다
- 4.6. 몸에 그 영이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
- 4.7. 죽음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2 부록 1:성서 기본 교리 요약

- 4.8. 그리스도 재림에 복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만이 부활하게 된다
- 4.9.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심판의 근거이다
- 4.10. 영생은 그 심판 후에 주어진다
- 4.11. 책임 있는 악한 자는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 4.12. 성서의 '지옥' 또는 '음부로' 무덤을 말하는 것이다
- 4.13. 성서의 '게헨나'는 예루살렘 도성 밖에 쓰레기와 시체의 소각장이었다

5. 하나님의 나라

- 5.1.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 5.2. 그 나라는 지금 멸망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수립될 것이다
- 5.3.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 5.4. 천년 왕국은 주의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 5.5. 그러므로 그 나라는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 5.6.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6. 하나님과 죄악

- 6.1.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증상하는 자' 또는 '거짓 소송자'를 의미한다
- 6.2. '사단'이라는 낱말의 뜻은 '대적자'이다
- 6.3. 그 양자가 모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 6.4. 마귀와 사단은, 비유적으로 죄와 육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6.5. 에덴 동산의 그 뱀은 실제 뱀이었다.
- 6.6. 사람의 창조와 그의 타락에 관한 창세기 기록은 실제적이다
- 6.7. 영적인 '귀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6.8.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실제로는 정신병을 치유했다는 말이다
- 6.9.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사람이 꾸민 이야기이다
- 6.10. 하나님 홀로 전능자이시다. 그외에 신은 없다
- 6.11. 신자의 시련은 마귀에게서 온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7. 예수 그리스도

- 7.1.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있는 '삼위일체설'은 성서에는 없는 교리이다
- 7.2.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 7.3. 그녀는 우리와 같은 보통 여인이었다
- 7.4. 예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 7.5. 그러나 그는 전혀 범죄함이 없이 온전하였다
- 7.6. 예수는 자의적으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 7.7.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 7.8. 예수 세상에 태어나시기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 7.9.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 7.10.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셨다
- 7.11. 그는 그 자신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제물이 되셨다
- 7.12. 예수는 우리의 대표로 죽으셨다
- 7.13. 기독교계가 믿고 있는 것같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부록 1:성서 기본 교리 요약 3

- 7.14.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
- 7.15.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8. 침례

- 8.1. 침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
- 8.2.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받는 것이다
- 8.3. 또한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 8.4. 침례의 형식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이다
- 8.5. 복음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성인이 받는다
- 8.6. 복음 지식이 없이 침례를 받은 자는 그 지식 터득한 후 다시 받아야 한다
- 8.7.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받은 침례가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9. 그리스도인 생활

- 9.1. 신자는 세상 죄의 길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 9.2.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발전해야 한다
- 9.3. 흡연, 음주 등등은 세상 향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다
- 9.4. 침례를 받은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9.5. 신자는 규칙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기념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9.6. 신자는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고 기도해야 한다
- 9.7.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진리의 교제를 가지며,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 9.8. 신자가 진리를 믿지 않든가 실천하지 아니하면,교회에서 단절된다.

4 부록: 2 성서 진리 학습 태도

부록 2: 성서 진리 학습 태도

이 ‘기초적 성서 교리’를 모두 배웠지만 그 메시지들을 자기의 실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 교리의 근본 원리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편람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1세기에는 복음 전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많이 있었다.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더라”(행.2:41). R.Roberts 형제가 자주 말했듯이, 복음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 “그것에 애정어린 믿음이 없는 자는”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 메시지를 단지 그들의 파트너 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 많은 사람을 침례 받게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개종자가 바른 태도로 침례를 받도록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확실하게 복음 교리를 터득시켜야 할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전도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서를 상고하였다”(행.17:11). 이 편람은 성서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복음에 진정으로 응답하려는 자는 성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본 편람은 복음 전도자가 항상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직 성서 메시지에 관계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것뿐이다. 로마에 있던 신자들은 침례 받기 전에 “그들에게 전하여준 바 교리의 본체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롬.6:17).

육신의 생각으로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자들은 바른 복음 메시지를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딤후.3:1-7) 끝나고 말 것이다. 사람은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의를 사랑함이 없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두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서를 읽고 연구해도, 그것은 이론적 훈련일뿐, 결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성서 읽기가 있다. 그 중의 한가지는 성서를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닌바, 우리 모두가 걸리기 쉬운 병폐이다.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감된 글인 구약성서를(요.5:45; 행.6:11) 공개적으로 매주 읽고 있었다(행.15:21).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매일 구절들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서의 핵심의 의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록: 2 성서 진리 학습 태도 5

“너희가 성서를 상고하거니와, ...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요. 5:39, 46, 47; 눅. 16:29-31)고 하였다.

이에 그 유대인들이 분개하였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성서를 읽고,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들이 굳게 닫힌 마음으로 읽었으므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어찌 볼 수 있겠는가? 눈을 감고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영적 발전 단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읽어야 할 것이다.

6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마.24:36; 행.1:7)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또 주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을 때에 (마.24:3),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그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은 알려주셨다. 예수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대체로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들을 알려주셨다. 그 징조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그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는 그 때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 1)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 2) 전쟁과 폭동이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 3) “처처에 기근과 유행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 4) 진리에서 떨어져나가는 배교가 있을 것이다
- 5)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라니, 이는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눅.21:26).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께서 그 사실에 관해 분명히 주의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께서 그 문제들이 이 지구를 위협하리만큼 크게 되었을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틀림 없이, 현 세대가 바로 그 때인줄 알 것이다. 인간들은 이 긴급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치 낙천적으로, 그 봉착한 현실에 무감각하여,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음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성취된 확증들의 단편들이다:-

- 1). 거의 모든 대륙은 대중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협잡군들과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계속하여 출현하고있는 추세이다.
- 2). 다음 통계표는, 인류의 최대의 역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계속하여 전쟁이 증가해가고 있는 그 전쟁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7

세기	전사자수	전쟁회수
17세기	3.3	?
18세기	5.0	?
19세기	5.5	?
1900-1945년	40.5	19
1945-1975년	50.7	119

(단위 100만명: 수집 자료: 런던 대학교, 세계 분쟁 연구회 간행)

- 3). 대량 기근과 불치의 질병은 잘 알려진 인류 문제로 되어있다. ‘에이즈’ 질병은 세계의 최대 전염병이 되고 말았다. 계속하여 세계의 농산물 생산은 감소되고 있다. 마.24장과 눅.21장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많은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사.2:19-22; 겔.38:20; 욥.3:16; 학.2:7; 슥.14:3,4. 최근에는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진의 징조대로 성취하기 시작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의 지진 통계는 미 합중국 정부 내무부에서 집계한 것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연대	지진 회수
1948년	620
1949년	1152
1950년	2023
1964년	5154
1965년	6686
1976년	7180

- 4). 교리를 터득하기 위한 성서 교육의 중요성이 감소되므로, 많은 사람이 성서 진리에서 떠나 대량 배교의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사회에 널리 퍼져 스며 있는 인간의 철학은 그 과정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 5).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현실도피 주의가 장래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학자들, 경제학자들과 생태계학자들 모두가 이 세상이 그대로 계속될 수 없다고 동의하고 있다. 자연 자원의 고갈과 부패, 대기의 오염, 오존층의 파괴, 전염병과 핵확산의 위협 등등 모두가 현 시대의 임박한 멸망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구 파멸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다(벧론: 9를 참조하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곧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여 이 지

8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구를 바꾸어놓으실 것이다. 이것은 아웨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계획이며 땅과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생

예수께서 담대한 성명으로 그 징조의 일람표를 끝마치고 부연하기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21:27) 고 하셨다. 그 다음 구절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눅.21:28).

그리고 예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그의 재림의 예언의 후기(後記)를 첨가하였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리라”(눅.21:29-32). 우리는 초봄에 초목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계절이 바뀔 것을 알게 된다.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돋으면, 우리의 세대가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지각해야 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욥.1:7; 호.9:10; 렘.24:2, 렘.36:8과 비교).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들에는 이스라엘의 재생을 말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 이래 그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들은 이 문맥에서 확실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장차 있을 이스라엘 침공

성서의 많은 예언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대 침공을 묘사하고 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고,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소유로 하자”(시.83:4,5,12) 고 선언한 것이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 침공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라로서의 현재의 부흥은 그 나라에 있을 최후의 대침공의 서곡인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재생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시.83 편에 요약돼 있는 그 이스라엘 침공자들의 태도가 오늘날 그 주위에 있는 아랍국가들의 태도와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화해할 수 없는 시기심을 선언하며, 예루살렘이 그들의 거룩한 이슬람 도성이라고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돼, 그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될 것을 묘사하고 있다(시.83:13-18).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9

기타 많은 예언들이 동일하게 그 사건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아랍과 그 북방 국가들에 의한 이스라엘 침공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립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날 것이다(겔.38장-40장; 단.11:40-45). 그와 같은 예언에 관한 깊은 연구는 믿음의 소망을 더욱 확실히 하는 영의 성장을 촉구할 것이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스가랴서에 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그 때에 야웨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기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슥.14:2-4; 눅.21:24과 비교하라).

전쟁과 정치적 행동이 가속화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대침공은 지금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유념하고 있다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그 침공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라”(살전.5:2-3).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가리킬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침공이 북쪽으로 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 침공은 곧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본 그 예언의 침공 이전에 또 다른 이스라엘 침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성서 연구가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지위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람산 동편에 그리스도의 발이 서게 하는 것을 통하여 개입할 것을 알고 있다. 그곳은 그리스도가 바로 승천하신 그 산으로, 그곳으로 그는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그 산에 서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행.1:9-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 온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의 재림 때에 일어날 세상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충성스런 신자들에게는 더욱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그의 임박한 재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그 보상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딤후.4:8). 우리가 알고 있는바, 우리의 입장의 긴급성, 세대의 끝날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날을 압박하기를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 부록 4: 하나님의 공의

부록 4: 하나님의 공의

성서 연구생들이 학습 과정을 완료한 때에 학습과 관련된 질문들을 들어낸다. 그것들은 모두가 대체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로 집중된다.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내버려두어,그들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후손들이 고통과 환란을 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그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과 의 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어렵게 하는 조건이라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지체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궁극적 지식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9:24)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가 이런 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믿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른 ‘불신’의 부분이 있어서 주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침례 받기 며칠 또는 몇 주일 전,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우리의 전생애 동안 어느 정도 회상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 상기(上記)한 질문의 형태로 가끔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각(知覺)해야 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또는 불의하다는 힐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지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은 극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절대 의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맹점인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 우주에 도덕적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와 불의의 바른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관념은 무의미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성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한정된 개념과 이성의 패러다임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하여 그런 것이다. 개가 사람에게 대하여 생각하는 것같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에는 넘지 못할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깊이 연구한 결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깨닫게 되었다. “야웨여, 내가 주와 쟁변(爭辯)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

다”(렘.12:1; 시.89:19,34,39,52과 비교하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제시하는 것은 그가 범죄하시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부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할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의롭다고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인간의 한 개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창조주에게 반응하도록 잠시 동안 주신 그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자고 부르시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뿐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초청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만 부르시는가 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하나의 동물이다(전.3:18-20).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어찌하여 다른 동물이 아니고,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듣는다 해도 그것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 사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무한한 이 우주가 창조되고 놀랍게 조직된 것들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인간의 과학이 평가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창조 행위들을 어린 애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였다. 본 부록 시작에 나열해 놓은 그 인간의 딜레마들도 그런 것이다. 본서는 그런 문제들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하다.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방법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우리는 대부분 인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결점과 과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기-인식이 결핍돼 있다. 인간은 심각한 정신 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 방법은 하나님의 것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의 생각하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시행하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요소로 창조된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창조주에게서 유출되었고, 창조에서 현현(顯現)하신 그의 의(義)의 개념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인간의 경험 안에 들어온 다른 것, 즉 죄악과 부정적(否定的)인 것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그가 존재하는 것조차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같이 근본적으로 그에게 선과 악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그것에서 창조의 부분에 악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들어온 전통 문화에서 세뇌돼 있는 그릇된 관념이다.

12 부록 4: 하나님의 공의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야웨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나니라”(신.29:29). 복음에 “하나님을 알만 한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롬.1:19), 그에 관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확실한 원칙들과,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여러 국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道)에 관한 셀 수 없이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부응하고 있는 그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요일.4:7,8),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딤후.1:12; 고후.5:16; 갈.4:9).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빌.3:10)라고 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점에서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고전.13:9,12).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우리가 그의 공의에 대하여 더욱더 밝혔으므로, 결국 그의 의로운 본성이 명백해지는 시대, 그의 백성이 모두 기쁨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실제 그것을 나타나게 되는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다. 그 때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적, 도덕적, 육체적 상처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고전.13:12).